

공공 실내공간의 풍경

최 범 / 디자인 평론가, 간판문화연구소 소장

공공공간으로서의 실내공간

공공공간에서도 외부 못지 않게 실내공간이 중요하다.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공공공간들은 개방적으로 되며, 그럴수록 실내공간의 기능과 분위기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 실내공간의 현재 모습은 대단히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사회적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이기도 하며, 또 외부공간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 실내공간은 외부 못지 않게 많은 공공적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공공 실내공간이라 하더라도 관청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같이 관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며, 로비나 민원실처럼 시민들이 출입하는 공간도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공공 실내공간의 풍경 몇 가지를 점묘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물취향성

흔히 우리나라 관청의 표정을 가리켜 권위주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국회의사당, 검찰청, 법원 등 권력기관이 한결같이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내부 공간도 그러한가. 외부 공간이 수직성의 강조와 폐쇄적인 구조, 견고한 재료의 사용 등으로 권위주의를 비교적 용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내부 공간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

공공기관의 실내 풍경들을 찍은 사진으로 <기관의 경관 Organ-Scape>(2006)이라는 전시회를 연 사진가 고현주는 전시 카탈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국가 권력기관의 공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조악함과 양적 성장에만 급급했던 거친 근대화의 특징들이 공간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공간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근대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린 근대화나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전혀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전혀 개방되지 않은, 아니 될 수 없는 이러한 공간이 나에게 어색한 차별성과 함께 묘한 신체적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공공기관의 실내 풍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묘사와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취향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기관 외부의 권위주의적 표현이 웅장한 신고전주의풍 등의, 최소한 그 자체로는 족보가 있는 하나의 조형문법을 구사하는데 반해 실내공간에는 어떠한 통합된

조형적 질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권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취향과 양식의 부재로 인해 권위를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지배 엘리트들의 취향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어떤 안쓰러움마저 느껴진다.

공공기관의 로비는 카페인가

공공기관의 로비를 카페처럼 꾸미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확실히 문민정부 이후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 업무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점차 밝아지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강남구 같은 부자 지자체의 민원실은 웬만한 은행 로비 못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 로비는 동사무소와 은행과 카페 분위기가 뒤섞인 상태로 여전히 혼란스럽다. 또 기존의 동사무소를 전환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도 아직은 기존의 기능적인 공간 배치를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성격에 맞는 공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로비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는 나름대로의 모델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카페와 같은 상공간을 모델로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상공간이 아니면서도 시민들이 찾기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다.

화장실과 환경미화

10여년 전만 해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면 언제나 거론되었던 것은 대중식당의 주방과 화장실의 청결함이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개선운동이 정부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화장실 개선운동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 일단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청결해졌다. 그러나 과연 화장실 리모델링에 어떠한 공간적 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역대 화장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화장실 개선사업은 환경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하여 개선사업의 결과 모든 화장실은 꽃(조화)과 그림액자로 장식되었다. 화장실은 나름대로 개성있는 디자인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장실 리모델링은 환경미화와 실내장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직 요원한 것인가.

실내사인의 품격

공공 실내공간에는 많은 사인류(간판)가 있다. 관공서에는 주로 부서를 나타내는 표시 사인과 방향과 위치를 지시하는 유도사인 등이 있다. 그러나 한결같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아크릴판에 고딕체로 된 사인들은 가뜩이나 딱딱한 관공서의 실내 분위기를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 대부분 기능적인 면에만 치우치고 미적인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 관공서의 사인은 방문객에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기능적이어야 하지만, 사인 하나에도 기관과 지역의 개성이 살려져 있다면 훨씬 더 품위있게 느껴지지 않을까.